

# '행복한 라오스 2021'

안녕하세요. 라오스 이준상, 배명희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라오스 선교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주님나라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episode 1



돋보기 안경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한국의 여러단체와 지인분들을 통해서 안경을 후원받아 지역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드림센터를 찾아 도수를 측정하고 눈에 맞는 돋보기를 받아 가셨습니다.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달라지는 세상을 경험한 분들이 볼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돋보기 보급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episode 3



여전히 개구쟁이인 녀석들.. '개구쟁이' -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고 건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드리려고..

부모의 학대, 지적장애,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과연초등학교나 마칠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도 했던 녀석들인데..

이렇게 우리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 그래서 고맙다. 개구쟁이면 좀 어때.. 좀 극성맞으면 좀 어때..



## episode 2

저희는 라오스 서북부 끝쪽 '골든트라이앵글'에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세계적인 마약생산지였으며,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제일 먼저 유통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동중이던 'Beer Lao' 10톤트럭 안에 '미친약'으로 불리는 마약 '야바(야마)'가 5.5톤이상 맥주상자등으로 위장해 실려 있었고, 더 충격적인것은 수면 마약으로 불리는 '야아이'가 1.5톤이상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사이로 일반 차량속에 교묘히 숨겨진 마약 '야바' 1톤이 검거되면 서이번주에만 2건의 사상 최대 마약 검거가 이뤄졌습니다. 어림잡아도 원화 1,000억여치 이상의 마약이 실려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동남아의 많은 사람들이 '야바'라는 마약에 노출되어 싼 가격에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건강과 정신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이웃과 학부형, 학생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쾌락과 목숨을 담보로 쉽게 돈을 벌려는 마약세력들이 무너지기를.. 그리고 하루속히 마약이 근절되어 건전한 삶의 문화가 회복되기를..

## episode 4



드림센터와 드림스쿨을 시작할 즈음 학교 동산 곳곳에 대략 100그루의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망고' 라는 이미지가 주는 스윗한 느낌과 함께 동남아열대과일 하면 역시 '망고'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때면 손에 닿는 망고를 따서 삼삼오오 모여 맛있게 먹는 동화속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 동네아이들과 주민들까지.. 모두가 드림동산 망고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 위 여인의 초상권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보 잘했지??- 아무도 못알아 볼거야.. 내가 이런 남편이라니까..

## episode 5



누가 보면 점심 휴식시간 뺏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 수학특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교사들이 거의 나온다. 그들도 수학이 약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나보다.

내가 이 나이에 수학공부를 다시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럴줄 알았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공부 좀 열심히 할걸.. 아직 우리 교사들중에 나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이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난 아직 모르겠다..

## episode 6

55미터 지점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니.. 다들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1,700명 카무족들이 모여사는 목쏘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우물을 통해서 건강과 위생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사용하지 못했던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구요..

곳곳에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물시추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 episode 7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갑자기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쿵' 소리가 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려 오던 레미콘트럭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며 학부모 차와 부딪혔다.

'주여 주여' 를 외치며 현장으로 뛰어갔다. 차문을 열고 안을 살피는데 다행히 학생이 없다. 다음 차에도 학생이 없다. 다들 탑승전이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다.

디행히 사고를 낸 운전자도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박상정도로 그쳤다. 교통정리를 하다가 많이 놀란 '푸턴' 교사를 위로하고, 차가 망가진 학부모 두 가정을 위로했다. 사고수습중이다. 놀란 가슴도 진정중이다. 참 우리네는 조용히 살기 힘든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도 감당할 만한 사건만 주시니 감사하다.



## episode 8

명희가 미역국 끓이는 방법과 효능에 설명을 하고, 어떻게 끓이는지 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목이 설 정도로.. 앞으로 미역을 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 분위기다.

참 신기한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먹어본적이 없던 바다미역인데..그리고 먹어보지 않던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인데..

'미역을 후원한 분들의 마음이 닿아서 일까? 필요한 영양분에 대해서 몸이 스스로 끌리고 있는 걸까?'

미역국을 맛본 모든 이들이 아주 맛있어 한다.. 저마다 옆구리에 미역을 끼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한다. 이 마을 오늘 저녁 메뉴는 모두 미역국이 될 듯...

(지속적으로 미역보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역후원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episode 9



두 달 동안의 교육을 마친 7명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가족들에게 당일날 주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한자 한자 적어간 그들의 마음담긴 편지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감격때문에, 모두가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명 한명 걸어주며, 평생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자고 다짐합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꽃과 선물과 축복을 나눕니다. 세례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 episode 12



라행동(라오스행복한동생만들기) 모임.. 볼때마다 예쁘게 자라가는 녀석들, 오늘 모임에서는 중독에 관한 교육을 하고,배드맨턴을 즐기고, 생일파티하고, 아내가 싸준 김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기분이 좋은가 보다. 장학금까지 받았으니..더할 나위 없겠지. (매달 가정형편이 어려운학생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교체하며 돕고 있습니다.)

## episode 10

드림스쿨배 배드맨턴 대회가 양일간에 걸쳐, 드림짐(dreamgym)에서 열렸습니다. 복식으로 구성된 총 17개 팀이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관람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실력 뿐만 아니라 경기매너까지 갖춘것을 보면서 다시금 이땅 라오스 배드맨턴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드림짐을 만든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욱 체육활동을 권장해서 드림인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줄 아는 이들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 episode 11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혹이라도 교직원들의 마음에 좌절과 포기가 자리 잡지 않게 희망과 웃음을 이야기하는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학기에도 역시 드림스쿨은 성장과 꿈을 이야기 합니다. 저는 드림 교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드림스쿨은 라오스 최고의 명문학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림스쿨에는 헌신된 교사들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episode 13



건축현장을 보고 올라왔는데 아내가 없다.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는데 책상맡에서 뭔가가 나와 내 다리를 잡는다. 순간적으로 놀라며 피했다.

가끔 뱀이나 도마뱀등이 방에 들어온 경험이 있다보니..놀랄 수 밖에.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좋아라 한다.

성공이란다.

내가 지난번 옷장속에 숨었다가 놀래킨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나를 놀래키려 무려 10분이상을 책상맡에 숨어 있었던단다.

우리 둘 다 철은 좀 덜 들었지만, 서스펜스한 재미가 있어서 좋다. 다음번에는 어디에 숨어서 아내를 놀래키면 좋으려나..~

## episode 14

구비구비 밀림오솔길 사이를 달려  
몽족들이 모여사는 백가디 마을에 가는중이다.  
그런데 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  
에어컨고장이다. 중간에 수리할 곳도 없는데 난감하다.

창문을 열고 달리다 보니 비포장 흙먼지가 차안에 가득하다.  
오늘처럼 마을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랬던 적도 없는듯..  
도착하기도 전에 땀이 빼질하고, 몸도 많이 지쳤다.

그런데 아이들과 마을사람들만 만나면  
생기는 경이로운 기운들...  
나만 그런가 봤더니 드림팀 전원이 다 그렇단다.

겨울옷구제팀, 미역보급팀, 성교육팀,  
마약예방팀, 위생교육팀, 레크레이션팀등  
6팀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겨울옷이 모아지고, 미역이 후원되고,  
컨테이너 작업이 이뤄지고, 빵들이 만들어지고,  
드림팀들이 활동하는 이곳은 공활한 마음들이  
모여져 완성되는 기적의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구제현금과 겨울옷과 학용품,  
미역등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



## episode 15



누군가에게는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서는 고단백 음식으로..

라오스 새해 명절 기간동안 공동체 식구들이  
사냥<?>해온 음식들. 곤충들과 도마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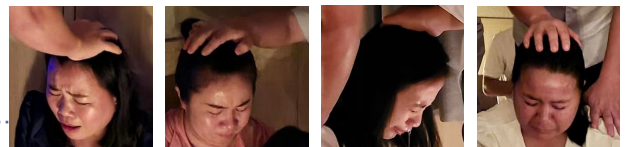
앞으로는 곤충이 미래의 대체식량이 될텐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듯.  
발전이 좀 더디면 어때.  
맑은 자연이 주는 풍성한 선물들이 있는데..

## episode 16



우리 드림베이커리 직원들..  
마카롱 광고하는 건 좋은데..  
파리가 있는 사진은 좀 그렇잖아..  
그것도 두 마리씩이나..  
사진을 바꿔주면 안될까?  
파리는 내 눈에만 보이냐?

## episode 17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씀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목이 쉬고, 땀이 흐르지만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그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쓰임받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영신 모임을 가지며, 이번 한해 주신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떠올리니,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은혜가 너무커서, 울며 감사하며, 울며 찬양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승리를 주실거란 말씀에, 또 울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시간인데 이상하게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 episode 18

많은 분들이 평상시 열대과일을 곁에 두고 먹으니 좋겠다며 부러워 하신다. 평상시 별로 과일을 즐기지 않는 나로서는 그다지 열대과일이라고 반가울리가 없다. 그런데 내 입맛을 자극하며, 계속 손짓하는 유일한 과일이 있으니 바로 파인애플이다.

한국에서는 너무 시어서 먹지 못했던 대표적인 과일이 파인애플이었는데, 여기 와서 안 사실은 파인애플이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이다. 밭에서 완전하게 익은 골드파인애플이 내게로 오기까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 주위에 파인애플 농장이 많고, 밭에서 익은 파인애플을 매일 시장에 내 놓기 때문이다.

내가 라오스에서 와서 유독 6월을 좋아하는 이유는 황금파인애플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파인애플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져 한통에 5,000깁(한화 600원)하는 파인애플로 나에 대한 사랑을 파인애플로 '통' 치려고 하는 이웃들과 교직원들때문에 매일 같이 파인애플이 넘쳐난다.

나는 요즘 파인애플때문에 행복한 계절을 살고 있다. 파인애플이 사계절 생산되는 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날잡아서 파인애플을 밭떼기로 사와야지...



### episode 19

말도 안되는 가격 ~ 1\$에 치킨버거가 출시되었습니다. 야삭거리는 순살프라이드치킨과 야채가 두툽한 베이커리 식빵속에 담겨졌습니다.

야삭거리는 식감과 고소한 빵이 조화를 이룹니다. 지난번 베스트셀러 치즈 핫도그에 이어 또 다시 대박 상품으로 등극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윤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를 마친 배가 허한 드림학생들에게 좋은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뜨거운 오븐옆에서 정성스럽게 빵을 만드는 드림베이커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

### episode 20



십수년전 소포안에 들어있던 수건의 문구를 보고 아내와 평평 운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문구가 외롭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처럼 들렸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구를 적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한 문장의 문구가 병원가족들과 환자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도시락을 받아든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코로나속에서 드림가족들이 꾸준하게 도시락지원과 물품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 episode 21



사실 좀 미안했다.  
드림스쿨배 초등부, 중등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가 모두 1등을 했으니 말이다.

점수차가 벌어질수록 기쁘기 보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주최측이 다 해먹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선수들에게 못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총 7개학교가 참여하여 멋진경기들을 보여줬다.  
참석한 교장들과 함께 앞으로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의 화합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자고 합의했다.

앞으로 드림스쿨에서 라오스국가대표가 나와서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멋진 선수들이 배출되기를..

## episode 23

매일 비가 내렸던 이번 한 주간..기회를 놓칠 수 없어 ‘죽순  
특공대’를 조직. 차로 1시간 떨어진 밀림속을 누비고 있습  
니다. 허벅지만한 죽순이 즐비합니다.  
아마도 몇 주는 죽순 반찬으로 풍성한 공동체 식탁이 이어  
질것 같습니다.

죽순이 저마다의 어깨에 가득한것이.. 마치 전장에서 승리  
한 용사들의 전리품 처럼 보입니다.  
죽순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것도 감사한데..  
달듯 펼쳐지는 예쁜 하늘과 구름도 더욱 감사합니다.



## episode 22

어린시절부터 우리집 앞마당에서 나눔이 세움이와 뛰놀  
던 부아가 18살 어린신부가 되어 자신을 빼닮은 공주  
를 출산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는 고기를 넣고 정성스  
레 미역국을 끓입니다.

산모는 화롯불에 몸을 지지며 산후조리를 한다지만,  
더운여름에 아기까지 너무 덥게 해놓아 아기의 얼굴에  
벌겋고 땀띠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아기  
엄마를 보며 육아에 대한 일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부아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해서..  
“난 너한테도 큰 아빠고 니 딸한테도 큰 아빠 할란다..”  
촌수가 좀 꼬이는 것 같지만...아직 할아버지는 싫습니  
다. 이 나이에 무슨...



## episode 24

주일 모임이 있는 그 시간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이 더욱 후끈해질것을 의  
미합니다.

35도가 넘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리가 새어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옹기 종기 모인채로 율동까지 함께하니 찜질방이 되었습니  
다. 땀이 비오듯 우리의 몸과 옷을 적십니다.

아내가 카톡으로 너무 더우니까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고 합  
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요, 아내  
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한시간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50분으로 줄였습  
니다. 그리고 평소 세시간이던 모임시간을 두시간만에 마쳤  
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밖에 나오니 뜨거운 바깥 열기가 시원하게 느  
껴집니다. 모임을 통해서 영은 살찌고, 육수는 빠지게 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 episode 25

“아~악“ 하고 그만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런일이 없었는데,, 어떤 생각에 골몰히 집중하다보니,  
그만 뜨거운 비데에 똥꼬(?)를 데이고 말았지 뭐니까...

이곳은 한낮 뜨거운 햇빛에 노출된 수도관 물이 온수이상으로 달궈집니다.  
낮에 비데(총모양을 닮아 비데총으로 명명)를 쓸데는 꼭 한동안  
비데총 물을 분출한후 시원한 물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잊고 비데총을 썩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는지 사람들이 듣고 괜챻나며 묻습니다.  
챙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웃고 있는데..  
낙살 좋은 우리 공동체 식구 C가 한마디 합니다.  
“아짜리 치질때문에 그런거예요?” “헐... 나 치질 없거덩...” 남 속도 모르고..  
화상연고가 어디 있더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 episode 26



매주 토요일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좋은 동화책을 읽히기 위해서 번역및 교정을 하는 드림스쿨교사들입니다.

어제는 ‘어린왕자’를 번역하는데.. 여우가 한 말 ‘길들인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시간 넘게 고민하며 가장 적절한 라오스 표현을 찾았습니다. 길들여 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믿음직스럽고 친해진다는 뜻으로 정의 했구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동화책을 번역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마음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권의 라오스 동화책이 번역되어 출간됩니다.  
라오스 전역에서 동화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라를 펴고 꿈을 키울 어린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 episode 27

드림유치원 공사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일및 페인트공사등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중단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때문이었습니다.

2월부터는 이 공간에서 유치원과 유아원이 열리게 됩니다.  
인테리어및 모든 공사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믿음과 품성과 실력을  
갖춘 멋진 인재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공동체와 개인 후원자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pisode 28

갑작스런 직원호출에 일하다 말고 와보니  
도지사님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유인즉 코로나 시기에 드림스쿨 했던  
여러 선행을 기념하며 표창장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표창장을 배달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우리는 표창장도 배송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상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우리선행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창장도 준비해주시니 감사하다.



## episode 29

송구영신 모임을 마치고 공동체 리더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습니다. 저는 '새해 선물을 준비했겠구나' 생각하며 모른척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라오스 전통에 따른 새해선물바구니를 제게 건넵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건네고 또 성도들이 모였으며 봉투를 전달합니다.

한해동안도 자신들의 스승과 아버지로 계셔 주셔서 자신들이 작년과는 다른 새해를 맞이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하집니다.' 살짝 닭살이 돋는 시간이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이 약발과 감동이 몇 달은 같것 같습니다.

봉투두께를 보니 '어림잡아 30만원정도 될것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 여느때 처럼 봉투를 열기전 기도하니, 주님은 '드림기숙사 공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넵 알겠습니다..'하고 봉투를 열어보니..헉 5만바트(180만원)가 들어있습니다. 액수에도 놀랐지만, 건축비용으로 다 드리겠다는 다짐에 흔들림이 살짝와서.. 바로 뛰어 내려가 공사를 담당하는 매니저에게 전달했습니다..



## episode 30

이미 다 합의가 되어 땅경계가 확정되고 땅 지적도가 다 나온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니 맞붙은 땅주인들이 나타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더 넓은 땅 소유를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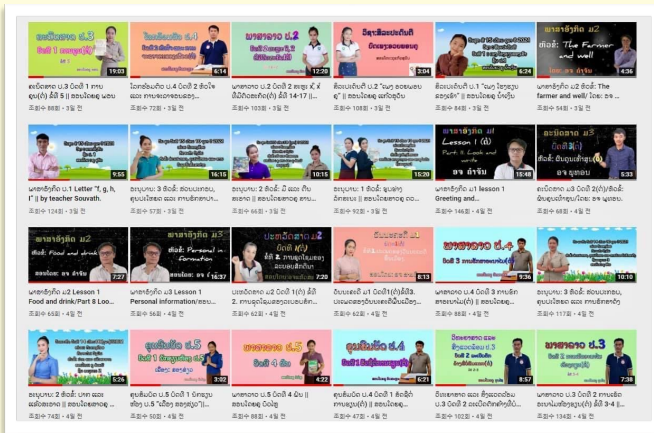
이미 드림스쿨 부지와 맞붙은 30명 이상의 사람들과 겪어온 일들이라 놀랍지도 않지만, 매번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속에 열과 불이 솟아오른다. 재산과 욕심앞에서는 이렇게 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니,,

'길가다 넘어지더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차오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분은 '모든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 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양보했다.

그리고 한국음식이나 필요한 약등을 가지고 땅주인들을 찾아가 교체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었다. 다들 머쓱해 하면서도 좋아하신다. 그 분 나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으로 넓혀지는 거니까.. 땅 몇 평 양보하고 그분들 마음을 얻었으면 됐지. 뭐...



## episode 31



계속 되는 코로나 상황속에 락다운이 연장되었다. 라오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 인구는 700만에, 의료시스템이 취약하다 보니 라오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차원의 락다운이다.

대부분의 학교도 이 상황에 맞닥뜨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6개월이상을 집에서 보냈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는지 이번주 교육 부회의를 통해 락다운 시기 학교 자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든 수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다.

이미 드림스쿨은 오래전부터 온라인수업 및 유튜브 수업을 해 왔던 터라.. 회의 시간에 드림스쿨의 수업방식이 소개되었고, 좋은 모델로 선정되었다. 우리도 흔쾌히 유튜브에 있는 유,초,중 교과 과정을 모든 학교와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아 감사하고,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여러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